

大學教育의 質 향상을 위한 改革 方案

姜 武 燮

(KEDI 教育計劃研究室長)

- ◇ 교육개혁심의회 제3분과(고등교육)에서는 고등교육 개혁 ◇
- ◇ 을 위한 7개 정책 과제를 연구, 지난 2월까지 심의·종결 ◇
- ◇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7개의 정책 과제 중 대학과 대학 ◇
- ◇ 원 교육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다룬 의결 주문 및 배경에 ◇
- ◇ 관한 주관 전문위원들의 기고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1. 大學教育의 改革方向

대학은 中樞的인 高等教育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은 教授, 研究 그리고 奉仕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통하여 개인의 더 높은 自我實現과 국가 사회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人類社會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의 近代 大學은 4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급격한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대학의 量的 成長은 많은 국민들에게 대학 교육을 통한 自我實現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高級人力의 量產을 통하여 國家社會·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급격한 量的 成長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大學教育의 質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향후 高度技術·情報化, 國際·開放化와 같은 대내·외의 사회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인 落後性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번 大學教育改革은 대학의 학문적인 秀越性을 추구하는 동시에 大學體制의 다양성을 조장하고, 대학 관리·운영에 自律性과 效率性을 提高시키는 데 中樞적인 目標을 둔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大學教育改革의 具體的인 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첫째, 向後 대학교육은 質的 高度化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大學教育 인구를 적정화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教育評價와 學位要件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質 向上을 위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지난 40년 동안 대학의 양적 팽창과 성장 추세에 비추어 볼 때 大學教育의 질적인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수준 제고에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大學生 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現實的인 대학의 興件으로 보아 양적인 확대는 질을 저하시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 인구를 適正水準으로 유지하면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학에 學生定員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評價와 學位要件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들이 善意의 競爭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秀越性을 확보하고 自律·自治 능력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支援·助成政策을 펴나가야 한다.

둘째, 個別大學들을 대학의 性格과 教育目的에 부합하도록 教育課程을 편성·운영함으로써 獨自的이며 특색 있는 學風을 조성하도록 大學體制를 다양화한다.

사회가 多變化·多元化되고 사회 구성원이 異質化됨에 따라 그들의 교육적 욕구도 多樣化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 수요 집단의 異質性은 大學體制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대학에 유사한 教育課程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대학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학들이 다양한 類型으로 특색 있는 체제를 갖추고 독자적인 教育課程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을 性格과 目的에 따라 유형화하고 대학간의 機能分化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이 기능 분화를 통하여 學風을 정립하고 專門性과 질적인 秀越性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 정부 당국의 대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대학이 自治能力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自律性을 최대한 신장한다.

대학이 行政機關의 指示·監督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도 自治能力이 부족하다는 갈등 현상은 항상 대학교육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이 본질적으로 누려야 하는 眞理探究의 自由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학의 政治的 中立性 保障은 대학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自律性이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政府當局은 대학에 대한 統制를 완화하고 지시·감독 사항을 대폭 축소하여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대학교육의 質 管窺와 직결된 최소한의 基準을 설정하고 政策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대학 당국은 自律을 누리기 위한 自治能力을 배양하고 무절제와 방증에서 벗어나 대학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하며, 사회와 국민에 대하여 대학의 責務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째, 대학의 教育 및 研究活動의 사회적 적 融合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大學財政을 획기적으로 擴充하고, 대학 관리·운영의 內的 效率性을 증대시킨다.

대학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내적인 能率性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대학 밖의 사회에 대한 外적인 生産性을 증대하도록 요구된다. 대학에 대한 국가·사회와 개인의 投資的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教育效果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적으로 대학이 수행하는 機能과 役割의 측면에서 대학에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에 주어진 國家·社會的인 역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대학의 產出이 사회적인 適合性을 가지는 동시에 生産的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 내부의 관리·운영의 측면에서도 내적인 效率性을 높여 나감으로써 대학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大學教育 改革의 方案

위에서와 같이 설정된 大學教育의 質 向上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諸 相關 영역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의 機能과 類型

대학의 이념은 대학교육의 目標나 機能에 대한 기본 철학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목표는 대학의 設立理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方式으로 진술된다. 따라서 대학의 理念이나 教育目標는 그 대학의 일관된 교육 내용과 대학 자체의 存立方式을 규정하는 근본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설정·제시하고 있는 理念 내지 중점 教育目標은 현행 教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보완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용어의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理念면에서나 教育目標면에서 뚜렷한 方向을 갖지 못하여, 각 대학들이 學問共同體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이 불분명하며 教育, 研究 및 奉仕 등의 諸 기능 수행에 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教育, 연구 및 봉사 등 대학의 3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인 설립 이념과 教育 목표를 명료화함으로써 모든 대학이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제안 1〉 대학의 本質的인 理念과 使命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대학들이 독자적인 目的과 機能을 갖도록 하고, 이들이 대학의 性格, 설치 학과, 教育 과정 그리고 大學 運營 전반에 반영되도록 명료화한다.

○모든 대학이 教授, 研究, 奉仕機能을 수행하되 대학의 특성에 따라 教授機能에 중점을 두는 대학 또는 研究機能에 중점을 두는 대학으로 그 기능을 분화한다.

○대학에 따라 教授機能 중에서도 學問의 기초가 되는 教育을 중시하는 學問指向大學과 실제적인 전문 教育을 중시하는 專門職業指向大學으로 特性화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理念과 目標의 불명료성으로 대학의 상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대학원간에 機能과 役割이 수직적인 연계를 갖지 못하고 미분화된 상태에 있다.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이 그러하다. 또한 4년제 대학들간에도 수평적인 機能分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대부분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나열하고 있으며, 유사한 대학에 유사한 학과들이 그대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은 규모와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등에 따라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종합대에 비하여 단과대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의 단과대학들이 종합대학교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특색 있는 대학으로의 發展이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의 구분보다는 모든 대학들이 설정한 理念과 教育目標에 따라 고유하고 독자적인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안 2〉 각 대학들이 설정한 目的과 機能에 따라 대학의 유형을 多樣化하고 현행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 구분으로 인한 法的·制度的인 差等的 요소를 제거한다.

○모든 대학들이 획일적인 동일한 발전 모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止揚하고 각기 比較優位의 분야를 重點 育成하며 특색 있고 독자적인 學風을 造成한다.

○모든 대학들이 목적과 기능을 명료화하여 學部教育과 大學院教育의 연계 속에서 大學院中心大學, 大學院並設大學 그리고 學部中心大學 등의 다양한 類型으로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한다.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구분된 名稱 및 大學經營의 責任者인 總長과 學長의 名稱을 구분하지 않으며 대학의 教育組織과 行政組織의 名稱이나 구성도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일임한다.

2)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

대학의 학과 설치와 教育課程의 編成·運營은 대학의 이념과 教育 목표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학의 이념과 教育 목표의 不明瞭性으로 대학의 학과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教育 과정이 폐쇄적으로 連繫性 없이 편성·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면에서 專攻學科間에는 물론 학문 영역간의 閉鎖性은 학문 발전과 教授 및 研究活動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大學教育은 그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급속한 科學技術·知識의 증가와 변화 등을 教育課程에 신속히 반영함에 있어 매우 未洽한 실정이다. 大學教育課程은 아래로는 高等學校 그리고 위로는 大學院課程과 連繫性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教養課程은 고등학교 教育 내용과 專

攻課程은 大學院課程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課程이 그 본래의 教育目的과 機能에 비추어 學問指向 教育內容과 專門職業指向 教育內容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설치된 학과를 재검토·조정하고,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從的·橫的 連繫性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과의 성격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동시에 모든 학과에 공통된 基礎·敎養課程의 확충이 요구된다.

〈제안 3〉 모든 대학은 독자적인 教育課程을 편성·운영하되, 教育課程 編成·運營의 特色성을 탈피하고 교육 내용의 從的·橫的 連繫性을 강화한다.

○학부에 설치된 학과들은 교육 과정 측면에서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유사 학과를 통·폐합 조정하고, 學部學科로서 부적합한 학과는 전문 대학 또는 대학원 학과로 전환한다.

○폐쇄적인 學科中心의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方式에서 탈피하여 學問系列間·學科間의 연계성과 공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廣域型 教育課程을 편성·운영하고, 複數專攻制와 副專攻制를 활성화한다.

○전공 교육의 심화를 위하여 選擇科目을 폭넓게 개설하되, 재직 교수 중심의 교과목 개설을 탈피하고 教育課程의 객관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교과목을 開設한다.

○학생들이 多樣한 學問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적 이념이 존중되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敎養課程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內質化한다.

教育課程 運營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에 있어 敎授—學習方法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敎授—學習過程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함으로써 學習效果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敎授—學習方法은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한 영역으로서 이는 대학의 施設이나 교수 확보 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지만, 大學敎授들 자신이 敎授—學習方法을 개선하기 위한 努力이 未洽하다

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大學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敎授中心의 강의 일변도식 敎授—學習方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大學教育의 質向上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의 일변도의 교수—학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 학습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教育工學의 발달로 다양한 敎授媒體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학 수업 현장에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敎授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수업 방법 개선은 물론 다양한 敎授媒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 4〉 학생들의 學習意慾을 증진시키고 敎授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敎授—學習方法을 연구·개발하여 활용하고 敎授研修體制를 강화한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研究·開發하여 활용하고 最新 敎授工學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자료매체센터 설치를 권장한다.

○대학의 初任敎授들에게 敎授要目의 작성, 學習指導方法, 學生評價方法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研修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敎授養成課程인 大學院課程에 필요한 교과를 설정한다.

졸업정원제의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상대 평가 방법에 의하여 處理됨으로써 評價上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學生評價가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나친 강박 관념으로 시험 일변도로 學業成績이 평가되어 왔다. 학생들의 學業評價가 대학교육의 질을 測定하는 척도이고 學問의 正直性을 보장하는 主要判斷指標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대학에 있어서 學生評價는 아직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등에 의하여 학생들의 學業成績을 평가하고 있어 評價 基準이 지나치게 단순함으로 학점의 신뢰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순화된 평가 기준은 학생들의 學習量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 평가를 폭 넓게 그리고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점의 公信力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多元化하고 평가 과정이 嚴正化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 5〉 학생들의 學業成績을 多樣한 準據를 통하여 평가하되 目標指向評價에 중점을 두고 시험 관리에 엄정을 기한다.

○ 필답고사 위주의 전형적인 學生 學業成績評價에서 탈피하여 授業參與와 태도, 과제물의 제출 등 評價準據를 다양화한다.

○ 학생들의 學習量을 증대시킴으로써 勉학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課題物에 의한 學業成績 評價를 強化한다.

3) 教授의 充員과 人事

대학 교수는 대학의 機能과 役割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教授充員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 교수 대 학생 비가 점차 악화되어 선진국의 2배 수준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들의 수업 부담을 격증시키고, 수업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특히 교수의 수업 부담 과중은 교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研究活動을 침체시키게 되었다. 물론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도 기인하겠지만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수업과 학생 지도 부담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大學教授를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條件을 助成해야 한다.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조성하기 위하여 研究助教 制度의 확대와 專任研究教授制 등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안 6〉 우수한 教授要員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그들의 資質 向上과 勤務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수의 연구 활동을 活性化한다.

○ 모든 대학이 대학교육의 質 向上을 위하여 우수한 專任教授를 劃期的으로 증원하여 대학의 유형과 동일 대학내 專攻領域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최소한 學生數 對比 1:15~20명 선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現職教授의 자질 향상과 勤務條件의 개선을 위하여 國內·外 研修機會를 확대·제공하고 教授研究年制(sabbatical year)를 확대·실시한다.

○ 교수의 授業 및 研究活動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 대학원생을 교수 또는 연구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有給助教를 대폭 확충한다.

○ 교수의 研究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專任研究教授制를 도입하고,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를 우대하는 碩座教授制(chaired professorship)를 둘 수 있게 한다.

教授의 任用 節次는 提請段階와 任命段階로 나누어지는 데 國·公立大學의 경우 임명 동의 권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제청권자인 총·학장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任用上에 非合理性을 내포하고 있다. 提請段階에서 선발을 할 때 이미 非公開的인 방법을 취하고 있거나 公開採用制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지원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친분이나 지역 및 학연 관계가 여전히 작용하여 공개 채용제의 원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教授社會에서 이러한 非合理的이고 閉鎖的인 任用 節次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昇進의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일정한 資格 基準이 있지만 자격 기준 자체가 업적이나 능력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年限에 의하여 직급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직급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業績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교수들의 資質 管理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教授再任用制는 일정한 評價期間을 두고 잠정적으로 임용하는 일종의 契約制이다. 그러나 교수 재임용제가 교수의 자질 관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제도를 악용하거나 교수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안겨 주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임용과 승진 등 교수 임용 제도 전반에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질과 교수의 수행 업무 능력 평가 결과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 7〉 교수의 임용과 승진은 公關主義와 實績主義를 원칙으로 하여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준거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평가에 嚴正性을 기한다.

○교수 채용에서는 출신 대학이나 地域意識을 불식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 제도를 정착시킨다.

○현행 敎授再任用制度를 停年保障任用制度(tenure system)로 도입하여 助教授級 이하에서는 계약제에 의하여 任用하고, 副教授부터는 敎育 및 研究實績을 평가하여 停年契約으로 任用한다.

4) 敎育 및 研究施設

대학의 외곽 시설 및 실험 실습 시설은 대학이 敎育 및 研究機能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외곽 시설의 확보율이 저조하고 絕對空間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內部施設, 즉 實驗實習施設 등의 부족 현상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施設基準令 자체가 노후화하였고 미비한 점이 많아 새로운 施設基準을 설정하여야겠지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確保率이 저조하며, 현재 확보된 시설 중에도 실제로는 지나치게 낙후되었거나 노후화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科學技術人力의 需要 增大와 관련하여 자연계열의 實驗實習施設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좋은 施設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불과 연 몇 회밖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敎科課程을 閉鎖的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정 학과에 속하는 시설이 閉鎖的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의 시설 기준을 現實化하여 보완하

고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의 活性化를 위하여 기본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확보된 시설의 活動率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안 8〉 대학의 特性과 規模에 따라 外廓 및 내부 시설 기준을 適正化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外廓施設과 內部施設을 확충한다.

○대학의 外廓施設 기준을 種類別·用途別로 구분하여 현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外廓施設을 擴充한다.

○대학의 內部 設備는 專攻領域 또는 學科別 敎育課程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수·학생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專攻領域間 또는 學科間 공동 활용을 유도한다.

도서관은 그 대학의 얼굴이며, 그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짚 수 있는 척도이다.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敎育 및 研究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국내·외에서 각종 學術情報資料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정보 자료에 신속히 접하지 못한다면 학문 발전에 뒤떨어지기 쉽고 그만큼 좋은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도서관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은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미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수나 학생들의 學問的인 敎育·研究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도서관들이 학생 수에 비하여 열람석 수가 부족하고,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필요한 장서와 학술 잡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최고 첨단에서 敎授와 學生의 학문 활동을 자극해야 할 도서관이 구태의연한 施設과 設備 그리고 비전문화된 인력을 갖추고 있어 최신 정보·자료의 입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이 교수와 학생들의 學問活

動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충·현대화하고 충분한 장서와 학술 잡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專門 要員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안 9〉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教育 및 研究活動의 주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장서와 학술 잡지 등을 확충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專門的인 奉仕機能을 강화한다.

○대학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大學 中央圖書館 이외에 대학 또는 계열별로 분리된 도서관을 擴充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수 대비 전체 閱覽席 數의 비율을 대폭 늘린다.

○대학 도서관을 教育 및 研究活動의 중심체가 되도록 施設을 現代化하고, 국내·외 최신 교육·연구 정보 자료를 신속히 입수·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간 도서 정보 교환 체제를 확립한다.

○惠攻別로 도서와 장서 및 학술지를 대폭 확충하며 지정 도서제의 도입 등 학습 활동에서 도서 활용을 촉진한다.

○대학 도서관이 教育 및 研究活動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다양한 奉仕機能을 갖출 수 있도록 領域別 專門職 要員을 확보한다.

5) 學生勉學與件

대학은 구성원들간의 相互交流나 活動을 통하여 다른 사회 조직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문화는 구성원들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의 諸般 施設은 대학의 독특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이 단지 학습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生活·文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의 후생 복지 시설은 구성원들의 創意的인 活動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에 구성원간의 접촉 기회를 확대시켜 바람직한 大學文化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시설 문제는 교육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에 한정되고 학

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주원인이겠으나 그에 대한 인식 또한 결여된 형편이다. 대학의 기능의 多元化로 인하여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구성원들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학은 자체내에 쾌적한 복지 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안 10〉 학생들의 勉學與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教育用 施設과 設備 이외의 각종 복지 후생을 위한 便宜施設과 혜택을 확충한다.

○학생들의 자치 및 쉼 활동은 들론 대학의 각종 文化行事와 활동에 필요한 施設空間을 확충한다.

○학생들의 福祉增進과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한 寮宿舎 施設을 확대하고 消費組合과 같은 각종 便宜施設을 확충하고 醫療保險의 혜택을 부여한다.

○학생들의 교내 생활과 학업에 관련된 문제, 個人 身上의 문제 그리고 就業과 進路의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指導·助言할 수 있도록 현행 學生生活研究所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의 면학 풍토 조성은 대학내의 정규 교육 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과외 활동의 정상화와 성숙에서 찾아야 한다. 보람찬 대학 생활을 조성하는 요소로서 강의실을 통한 면학과 더불어서 방과 후 과외 활동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知的 好奇心, 才能 그리고 趣向 등은 과외 활동을 통하여 표출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學術, 教養, 體育, 奉仕, 藝術 등 학생 개개인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대학 사회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課外活動은 正規學科와 별개가 아닌 통합된 전체의 한쪽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대학들도 이를 조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學生自治 및 課外活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학의 학생 과외 활동의 목적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한 불이해와 오해가 학생 과외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 과외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는 指導體制와 支援體制가 미약하다.

따라서 학생 자치 및 과외 활동을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正規敎育課程과 양면을 이루는 통합된 대학교육 과정으로 강조하고 건전하게 育成發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안 11〉 학생들의 自治活動과 自治機構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건전한 쉼 활동과 大學文化를 支援·育成한다.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學生들의 權利와 利益을 옹호하는 學生自治機構를 自律의 任意機構로 육성·발전시킨다.

○쉼에 대한 지도 교수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학생들의 正規學業과 大學生活를 풍요하게 해주는 건전한 課外活動과 文化行事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육성한다.

獎學金 制度는 學業成績이 뛰어난 학생에게 포상을 하고 그를 통해 다른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자극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동시에 학업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經濟的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福祉的 측면도 갖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厚生福祉 向上을 위한 여러 가지 支援體制 중 장학금 제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또한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誘引策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副職 制度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福祉的·敎育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장학금 제도가 크게 확충되고 부직 제도도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獎學金

受惠對象과 受惠額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직 제도도 부직 기회가 협소하고 勤務條件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獎學金 制度和 副職 制度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안 12〉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勉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獎學金 制度를 확충하고 일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교내·외의 學生 副職機會를 확대한다.

○現行 登錄金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校內 獎學金 制度의 개선은 대학의 自律에 맡기고 그 수혜 대상은 低所得層의 학생 중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 되도록 한다.

○대여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수혜 대상 학생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貸與金額도 점차 증액하며 長期低利로 대여해 준다.

○학교 수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校內·外에서의 부직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放學期間이나 학기중의 야간에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副職 職種을 개발하고 副職機會를 확대한다.

6) 大學行政 支援體制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관리는 정부의 統制와 대학의 自律에 대한 요구가 교차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학들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公共性을 상실하고, 自律性을 누릴 수 있는 自治能力을 충분히 신장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의 공공성 상실과 자치 능력의 미흡은 대학 행정·관리와 학사에 정부의 과도한 干涉과 指示·監督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의 行政·管理體制도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自律性을 살리지 못하였다. 대학의 규모가 크거나 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학 행정은 점점 관료적 체제로 굳어져 갔으며 대학의 政策決定過程이 폐쇄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내 구성원, 특히 專門的 自律

성을 추구하는 집단인 교수들과 能率性을 지향하는 집단인 행정가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키며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조직의 特殊性과 獨自性에 부합하도록 대학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본질적 속성인 自律性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대학의 정책 결정이 民主的이고 合理的으로 이루어지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안 13〉 행정 당국의 대학에 대한 統制와 指示·監督을 최소화하고 대학이 自治的으로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운영의 自律性을 신장한다.

○문교부는 大學敎育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과 政策開發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두며, 諸般 大學行政業務는 대학자율협의기구에 대폭 위임하고, 대학에 많은 裁量權을 부여한다.

○대학 교수가 대학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教授會議 또는 각종 委員會의 기능을 活性化한다.

대학이 公共性의 바탕 위에서 自主性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관리·운영 체제를 보면 국·공립대학은 문교부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문교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대학이 관리·운영됨으로 대학이 갖는 特殊性과 自主性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理事會는 대학의 人事와 財政에 관한 決定權을 가진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기는 하나, 실제 그 구성 등이 폐쇄적이어서 대학이 公共性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관리·운영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고 그 公共性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학 내부의 침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 관리 운영 기구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제안 14〉 대학의 主要政策事項(敎務, 財務, 企劃, 人事, 學生指導 등)을 審議 議決하는 기구들

개편하여 大學이 社會의 公器로서 責務性을 다하는 동시에 公共性의 바탕 위에서 自主的이고 效率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사립대학의 이사회는 교수 대표, 동문 대표, 저명한 사회 인사, 대학 행정가 등으로 광범하게 그 구성을 확대 개편하도록 권장한다.

○國·公立大學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特殊法人化’ 하여 理事會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대학의 內的 行政管理體制에서는 실질적으로 總·學長이 행정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學校法人 理事會가 있어 행정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총·학장의 하부 행정 관리 조직은 大學의 성격과 규모 및 그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학 규모의 肥大化와 학문 영역의 細分化는 물론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多樣化로 행정 관리 조직이 細分化되고 그 규모가 擴大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行政管理業務가 專門化되고 科學化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行政管理要員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와 專門的인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대학의 敎育 및 研究支援行政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내의 행정 관리의 전문성 결여와 전문적인 지원 행정 업무의 미숙으로 교수들의 敎育 및 研究活動을 침체시키게 되고 나아가 大學敎育의 質的인 秀越性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의 행정 지원 조직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행정 관리 요원의 자질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 조직의 거대화와 업무의 複雜化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 행정 관리의 科學化가 절실히 요구된다.

〈제안 15〉 대학을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위해 行政組織 및 行政要員을 전문화하며 이를 위한 大學情報管理體制를 확립한다.

○대학의 企劃機能을 전담하는 부서를 확충하고 專門要員을 배치하여 長期的인 發展計劃 수립과 정책 개발은 물론 大學管理運營의 조정 및

評價機能을 담당케 한다.

○대학의 研究機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 부서(가칭 '研究支援處')를 신설하도록 권장한다.

○대학의 行政管理業務의 專門化에 대처하고 大學行政要員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직 연수를 실시하고 大學院課程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최신 事務器機와 관리 기법을 도입·활용하고 大學管理情報體制를 확립하여 行政管理를 과학화·전산화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학의 설치·學科 및 學位課程의 인가가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과 조정 없이 일정한 외형적 기준만 갖추면 인가하였으며, 그 운영 실태에 관한 充實도와 社會的인 公信用에 대해서도 방치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인기 있는 학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無計劃的인 학과와 학위 과정의 증설로 대학의 지역적 분포나 대학교육에 대한 社會의 需要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무계획적인 대학 정책과 대학교육의 질 관리 소홀은 대학교육의 社會的인 公信用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최근에 와서 대학의 運營實態와 興件 등을 평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大學教育 評價에 대한 행정가나 대학인은 물론 사회 일반인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평가 목적의 不明瞭性과 評價制度의 미정착 상태로 그 결과가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관리·운영의 自律性을 확보하고 대학교육의 社會的 公信用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교육의 질적인 秀越性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 평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제안 16〉 大學評價制度를 專門的·自律的 '大學評價認定制度'로 발전시켜 대학의 質的 向上을 기한다.

○대학 평가의 제도화를 위하여 대학의 自律協

議機構에 상설적인 大學評價委員會와 그 하부 기구로서 系列 또는 專攻領域別 분과위원회를 둔다.

○대학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학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계 인사는 물론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國家單位의 대학 평가와 大學 自體評價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개별 대학 단위에 自體評價委員會를 설치·운영한다.

7) 大學財政確保 및 運營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大學財政은 財源이 한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영세하다. 국·공립대학의 재정은 국고와 학생 등록금에 그리고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教育費를 보면 선진국의 1/3에서 1/5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 재정의 霽細性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여건 부실, 즉 시설 부족과 교수 대 학생 수비의 과다 등은 바로 불충분한 재정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금에 財政을 의존함에 따라 無計劃的인 대학의 확장을 통하여 학생 수를 늘려 왔으며, 그 결과는 대학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大學改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財源을 多樣化해야 한다. 특히 民間資本을 대학교육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안 17〉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大學財政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그 財源을 多樣化한다.

○대학교육의 秀越性 追求와 教授·研究 機能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의 財政支援을 확대하고, 특히 學生登錄金에 대학 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政府 財政支援을 강화한다.

○大學設施의 개선과 우수 교수 확보 및 研究活動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大學發展基金(가칭)을 조성하고 그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大學財政補助委員會를 둔다. 基金確保를 위해서 政府豫算의 할당은 물론이거니와 經濟團體를 통한 사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誘引方案을 강구한다. 그리고 大學發展基金은 '大學評價認定制度'와 연관시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평가 기능을 갖는 대학자율협의기구에 大學財政補助委員會(가칭)를 둔다. 大學財政補助委員會는 대학 대표, 정부 대표, 산업계 대표, 민간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基金確保와 基金活用 및 配分을 결정하고 정부에 대하여 대학 재정에 대한 자문 및 조정 기능을 갖는다.

○대학의 教育 및 研究與件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대학의 登錄金을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도록 자율화한다.

○個別大學의 재정 확보는 물론 대학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 제도를 양성화하고, 篤志家나 民間團體 또는 私企業의 기부 행위에 대한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個別大學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부자 명의의 寄金, 書庫, 건물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한다.

대학의 예산은 대학의 주기능이 교육 및 연구에 바탕을 두고 編成·執行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행정 관리들에 의하여 劃一的인 예산이 編成·統制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학 경영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즉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대학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自律性과 彈力性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대학 예산이 경영자의 장막에 쌓여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公共性과 效率性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編成과 運營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투자의 優先順位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대학들이 公共性을 무시하고 대학을 企業化하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어 대학 재정 운영의 無原則,

非公開, 短期性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재정을 대학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재정 운영에 自律性과 公共性을 보장해야 한다.

(제안 18) 대학 재정의 彈力的 活用으로 교육 및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財政 自律性을 보장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 公正성을 확보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총괄적인 예산만 정하여 주고 그 세부적인 편성과 執行項目의 결정은 대학 자체에 위임한다.

○大學豫算의 편성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學科單位 또는 大學單位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

○사립대학 재정 운영은 公共性과 效率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정상의 일체의 회계 감사는 理事會가 임명하는 공인 제리사가 담당한다.

8) 大學의 協同體制

학문의 영역의 細分化되고 專門化되는 것이 현대 학문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문 분야의 학과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모든 학문 분야의 教育 및 研究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 사회의 폐쇄성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학간의 이러한 專門人力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면에서뿐만 아니라 施設이나 情報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학들은 독자적으로 대학이나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구 시설 중 고가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모든 대학이 충분히 갖추 수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 그 활용면에서 모든 대학들이 이러한 고가의 기자재를 갖추 필요도 없다. 시설 투자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간의 이러한 시설의 공동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 대학간의 협동 인식 부족으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投資 效率性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학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와 협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안 19〉 대학교육의 내적인 效率性を 증대시키고 외적인 生産性を 제고하도록 大學相互間의 協同體制를 확대·강화한다.

○타대학에서의 수업을 허용하고 취득한 학점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相互認定하는 制度와 대학(교)간에 공동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共同講座制를 실시한다.

○대학 상호간에 교수를 상호 교류하거나 實驗實習施設과 研究施設을 共同活用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대학이 教育 및 研究機能의 수행을 통하여 그리고 연구 기관은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결과를 산출한다면 산업체는 이러한 인력과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쪽이다. 따라서 대학, 연구 기관 그리고 산업체간에는 共存共生할 수 있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 발전을 지원·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支援·協力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등으로 상호간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 기관 및 산업체 등은 運營體制가 폐쇄적이고, 지나친 競爭意識에 사로잡혀 있다. 대학 사회는 아직도 고루한 상이타적인 전통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산업체는 산업 기술이나 기업 정보의 기밀 누설 등으로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 기관 및 산업체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기능과 관련하여 相互補完의인 分業體制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연구·개발의 效率性を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기관 및 산업체가 상호 지원·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공동 활용 등 적극적인 협동이 요구된다.

〈제안 20〉 産業界와 學界 및 研究機關 사이에 인적·물적 상호 교류와 폭 넓은 정보의 교환 등 多角的인 측면에서 協同體制를 구축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또는 연구 기관과의 共同研究를 촉진하도록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한다.

○大學에서의 부족하고 낙후된 실험 실습 시설을 보충하여 충실한 실험 실습 교육이 실시되도록 산업체 및 연구 기관에서의 실험 실습 교육을 내실화한다.

○대학의 교수진과 연구 기관의 연구진 사이에 파견 근무제를 실시하고, 産業體의 자격 있는 專門家들을 초빙 교수로 활용하는 制度를 확대 실시한다.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산업체의 필요한 人力의 確保 등에 대한 相互情報交換을 위하여 대학의 就業擔當 부서와 산업체의 인력 담당 부서 사이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한다.

9) 開放型 大學教育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와 平生教育 理念의 확산으로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등교육 이후 단계에 대한 계속교육 수요의 증대는 대학교육 기능의 擴張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학교육에서의 교육 대상 집단은 모든 면에서 상당히 同質的이었으나, 대학교육의 계속교육 수요 집단은 어느 면에서 異質的이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大學體制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 수요 집단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입학과 졸업 등의 학사 운영과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수업 연한, 학기 諸 운영 등이 劃一化되어 있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대학 운영 체제에서는 대학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社會奉仕機能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大學體制를 개방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多樣性과 彈力性을 제고함으로써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교육 단계의 다양한 繼續教育 需要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안 21〉 사회의 繼續教育 및 平生學習에 대한 要求에 부응하고, 대학의 풍부한 人的·物的 資源活用을 통하여 社會的 奉仕機能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대학의 正規學位課程 이외에 地域社會의 住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非正規學位課程을 개설·운영한다.

○大學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독립된 平生敎育院(가칭) 또는 成人學習센터(가칭) 등을 設置 運營하도록 권장한다.

방송통신대학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차원에서 遠隔大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은 그 운영의 開放性과 교육 대상의 多樣性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 방송 매체의 활용 등을 基本性格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에서 보면 방송통신대학은 개방성을 살릴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나 교육 기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의 방식이 다양한 敎育對象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은 그 여건 면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한 高等教育 機會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학과도 일반 대학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이 방송통신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敎授—學習方法도 전통적인 대학교육 수요 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이 그 성격에 맞도록 敎育機會를 제공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편성·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학과와 정원에 融通性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안 22〉 放送通信大學이 제 2의 高等教育 機會를 제공하는 開放型 大學으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擴張하고 운영을 內實化한다.

○放送通信大學은 지역 단위로 學習센터(기존 고등교육기관의 병설 형태로 운영하거나 또는 독립된 형태의 새로운 센터를 설치)를 두고, 방송 수업(독립된 교육방송 채널 확보가 전제)과 출석 수업을 併用하는 다양한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을 기한다.

○人文·社會系列 中心의 放送通信大學 설치 학과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연계열 학과까지

확대·설치하고, 學生 需要에 따라 定員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개방대학은 1차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산업체 근로자들이 그 분야의 專門的인 知識, 技術을 습득하기 위하여 계속교육을 받고자 할 때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開放型 大學體制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방대학의 설치 학과나 개방대학의 성격은 완전 개방을 지향하는 대학이라고보다는 오히려 제한된 분야에 產學協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학교육 체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개방대학은 그 명칭이 풍기는 일반적 통념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학생의 入學條件과 대학의 설치 학과 및 정원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입학 자격 요건에 현실 근무 경력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러한 資格要件이 形式化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체와의 연계 속에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를 설치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정원이 融通性 있게 결정되어야 하나 학과 설치와 정원 조정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방대학이 명실공히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을 통하여 人力養成에 기여할 수 있도록 內實化할 필요가 있다.

〈제안 23〉 開放大學은 유기적인 產學協同體制下에서 産業體 근로자에게 高等教育 段階의 成人 繼續敎育과 再敎育 機會를 제공하는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개방대학은 專門大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4학년 중심으로 定員을 확충하되, 大學의 여건과 學生 需要에 맞추어 대학이 自律的으로 융통성 있게 정원을 조정한다.

○개방대학은 원칙적으로 實業高等學校와 專門大學 卒業者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入學要件에 현장 실무 경험을 강화한다.

○개방대학은 그 성격상 產學協同을 전제로 하여 産業技術分野의 學科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의 名稱을 이에 적합하게 改稱한다. *